

중평 청자요지 가치규명 나서

〈진안 도토리〉

진안군,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국가 사적으로 승격·지정 위해

진안군 도토리 중평 청자요지 학술 심포지엄이 29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안군과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주관하고 국립전주박물관과 호남고고학회에서 후원했다.

진안군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34호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요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 가마터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가 사적으로 승격·지정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김영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정상기 국립제주박물관 학예

연구실장 등이 진행하는 5개 주제 발표와 유병하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 등이 펼쳐졌다.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요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 조사와 올해 시행된 5차 조사를 진행해 진흙·갑발로 축조된 1호 가마와 벽돌·진흙 등으로 축조된 2호 가마 등 총 2기의 초기 청자가마가 확인됐다.

특히 전체길이 43m의 2호 가마는 처음 벽돌을 재료로 축조되었다가 이후 진흙·갑발을 재료로 개축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되었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벽돌가

마가 확인된 가마터이자 호남 최대의 초기청자 가마터로 평가되고 있다.

최초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로 일컬어지는 벽돌가마와 그 이후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진흙가마가 함께 조사되면서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전파과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토리 중평 청자요지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 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심포지엄 결과물은 국가 사적 지정에 위한 자료와 향후 유적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생활개선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700포기 담가 어려운 이웃 60가정에 전달

한국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8일과 29일 혼자 어르신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700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4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28일 그동안 과제학습으로 재배했던 배추와 대파, 무 등을 직접 수확해 소금에 절였으며 29일에는 양념에 버무려 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각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한 이웃 60가정에 전달했다.

한국의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김장 비용은 11월 초에 개최했던 농·특산물대축제에서 회원들이 향토음식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감당했다"며 "축제 때도 3일 내내 시간과 노력봉사로 애쓰고 날도 추운데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이웃돕기에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땀 흘려 번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보람있고 뿌듯하다"라며 "가정마다 돌아가는 김치는 많지 않았지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만큼 든든한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 김장나누기를 통해 함께 고생한 회원들은 더 돈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겨울이 즐거운 무주, 안전도 으뜸

무주군,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선정... 재난 대응 전국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서

무주군이 지난 29일 포항에서 열린 자연재난 대응 전국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2016년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날 워크숍은 관련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의 기회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예방적 방재대책에 역점을 둔 한 발 앞선 대비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간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DB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해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도로 등 급별 제설대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도에서 평가한 2017년 겨울철 사전대비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중앙평가를 받게 됐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리동석 재난방

재 담당은 "설해와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라며 "군민은 물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앞으로도 관내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진행해 선제적 재난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난을 막기 위한 시책 추진에 주력해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산골 사과작목반, 농작업안전관리 실천분야 최우수상

장수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관리 실천분야에서 지난 28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지도로 청산골 사과작목반이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관리 실천분야에서 지난 28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농작업안전관리 실천분야는 2017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사업의 일환인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지도로 청산골 사과작목반이 추진,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과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경진회는 청산골 사과작목반이 농작업 안전기록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실천, 농업인 안전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 받았다.

장수청산골사과작목반 김성진 회장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

범사업으로 인해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교육을 받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서정민 소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한 농작업을 통해 장수군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사랑의 보금자리 입주식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지난 6월 28일 장수군 산서면 운모씨의 주택 화재로 목조주택 1동이 전소되고, 허간과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어 생활 터전을 상실한 가정을 위해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손길로 주택을 신축해, 지역주민후원자·자원봉사자·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사랑의 보금자리 입주

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장수군 통합사회회의를 통해 사재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지원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연탄은행의 후원금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의 측량 재능 기부와, 누리건축사 사무소 설계 재능 기부로 지어졌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장운영... 내년 1월 31일까지

진안군은 29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과수, 인삼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방재단 활동을 하며 포획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농한기에도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과수, 분묘 등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이 지역을 이탈해 진안으로 넘어오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진안군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피해 방지단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시 '산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잎새버섯 등이 함양효과가 좋다는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산림에서 이들 버섯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보호종 53종 중 9종이 버섯류로서 보호종에 포함된 잎새버섯 자생종은 채취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보호종 채취시 벌금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된 법령이 공포되었으니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 삼락농정 특화사업 공모 진안홍삼 수출 활성화사업 선정

진안군은 29일 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2차 공모에서 '진안홍삼 수출 활성화 사업'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진안홍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전북인삼농협이 수출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액 추출용 주정 보관탱크, 폐수처리시설 증설, 농축액 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인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수매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을 통한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로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겨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